

기아, 車 생산 멈췄다



8일 오후 광주서 서구 내방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7일 발생한 협력업체 안전사고로 부품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든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협력사 사망 사고에 부품 공급 안 돼 ... 광주 생산라인 가동 중단 150개 협력업체 연쇄 중단 위기 ... 차 하루 2000대 생산 차질

광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안전사고로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 가동이 멈춰 섰다. 이로 인해 다른 협력업체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고 생산중단 상황에 몰리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8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샷시 차체부품을 공급하는 기아 1차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작업이 중지,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사고 당일 밤 9시부터 순차적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현재 버스 생산 라인을 제외하고 1·2·3공장의 모든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력 생산 모델인 스포티지를 비롯해

셀토스와 쏘울, 봉고트럭 등의 생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는 하루 2000대 상당의 자동차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가동중단이 지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차 협력업체 50여 개사를 비롯해 총 150여 개의 협력회사가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가 생산현황을 실시간 공유, 이를 통해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멈춰 서면 관련 협력업체 역시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사태로 상당수 협력업체들은 이미 가동이 중단됐고, 일부 업체들 또한 가동중단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광주공장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일은 처음"이라며 "언제 다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광주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의 3대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가전이 경기침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동차가 지역 수출을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5.5%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9월 전년 대비 0.4% 감소를 보였고, 냉장고도 전년 대비 2.9% 줄었다. 이와 달리 자동차는 수출이 21.2%나 증가했고, 자동차부품도 같은 기간 30.0% 늘면서 광주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광주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로 지역 가전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엔 자동차산업마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 철거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갑질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19면

해묵은 규제 3개 '삭제' 전남도 해상풍력 '탄력'

발전기 높이 132m→상향 등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대표적인 규제 3개를 끈질긴 노력 끝에 삭제할 근거를 마련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군 작전성 협의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에 가공송전선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에서 25%로 확대될 예정이다.

군 작전성 협의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발전기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관련 부처에도 수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비 3829억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발전기동에도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하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마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의 경우 행안부가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원에서 786억원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등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열정과 감동 ... 전국장애인체전 폐막

육상 4개 금메달 임준범 MVP

지난 3일 막을 올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8일 폐회식을 갖고 내년 경남 김해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이날 폐회식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선수단, 임원,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8면>

폐회식은 성적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 시상, 체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대회기 전달, 주제공연, 성화 소화,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2019년 14위, 2021년 10위, 지난해 9위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왔지만, 올해 종합 순위 3위로 괄목할 성적을 달성했다. 광주도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5위로 선전했다. 이번 대회 중

합 1위는 경기도가 차지해 3연패를 달성했고, 서울이 뒤를 이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은 육상에서 4개 금메달을 딴 임준범(24·경북)이 차지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폐회사로 대회의 끝을 알리고, 대회기를 강하게 차기 개최지인 경남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가 환송사를, 김대중 교육감이 폐회선언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회 기간 열정을 다한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도민지원단 등을 격려하기 위한 강진, 은근,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역대 최고의 국민대통합 감동체전이었다"며 "선수들의 무한한 도전 정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났던 이번 대회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학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로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404, 공차중량(kg): 2540, 배터리 용량(kWh):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401, 공차중량(kg): 2510,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